朝鮮日報 朝刊

社說 幣制改革의 波紋

一

中國은 여러가지 點에잇서서 現代國家로서의 資格이 잇슴은 世人이 共認하는바이어니와 特히 貨幣制度에잇서서 더욱이 그러하다. 누구나 잘아는바와가티 中國은 墨西哥와함께 銀本位의 主要한 國家로서 全世界가 金本位로나가는 그사이에 끼여 때때로 남아잇는 通貨上 困難을 밧게되엿스니 米國의 銀國有令實施로 中國에서 唯獨히 바든 打擊가튼것을 생각하면 그間의 事情을 容易히 看取할수잇는것이다. 그뿐만아니라 國內的으로 貨幣가 統一되지못한 關係로 此에 伴하는 不利한 點이 또한 多大하다. 그리하야 中國의 幣制改革의 必要는 中國國民經濟를 爲하야 또는 國際通商上 便宜, 安定을 爲하야 自他가 共認하는바이나 일즉부터 容易치 안흔이 만치 今日까지 實現을 보지못하고 잇던바 얼마前 英國으로부터 經濟使節 레이드·로스氏가 中國에 派遣되야 貨幣制度를 硏究調査한後 國府當局과 協議한 結果 去三日 突然 銀國有令을 發布하고 翌四日부터 此를 實施하게 되엿다함은 이미 報道論評한바잇거니와 銀國有令을實施한지 于今一週未滿에 此에同伴되는 內外的 그波紋은 實로 容易치 안흔바가 잇다.

二

今回 幣制改革에잇서 積極的으로 此를 援助하는나라는 勿論英國이다. 中國에 對英借款 一千萬磅說에 對하야는 兩國이 모다 否認하엿스나 幣制改革의 資金出處는 英國以外에 다른나라를 想像할수업슬뿐아니라 昨今에와서는 當路責任者들도 非公式으로 借款成立說을 確認하고잇는터인데 英國以外에 米國도 自國銀政策에 적지안흔 影響이 잇슴에도 不拘하고 大體로는 中國幣制改革을 支持하는 態度를 보이고잇스나 中國과 가장 密接한 關係에잇다할수잇는 日本만은 極力 이것을 反對하고잇다. 日本에서 中國幣制改革에 反對하는理由로 八日 上海駐箚大使館武官 磯谷少將의 重大聲明과 九日陸軍當局의 重大意見發表는 四億萬中國國民의 福祉를爲하는 立場에서 北中現銀은 日本의 實力發動에 訴하더래도 斷然 北中에 保留할것이라는 重大한 決意를 宣明하엿거니와 日本에서 極力 此에反對하는 政治的乃至 經濟的理由는 幣制改革의 資金이라는 名目下에 英米資金이 中國에 流入되는 境遇에 이것을 無條件으로 貸與하는것이아니오 鐵道擔保, 또는 關稅收入, 가튼것을 擔保로 할뿐아니라 當該貸與國人의 任命가튼것도 條件으로하는 關係上 政治的으로 經濟的으로 當該國勢力이 擴張되는 同時에 自然 中國內에는 親日派의 勢力보다 歐米派의 勢力이 伸張될것이오 境遇에 依하야는 借入된資金이 中國軍備에 使用될 念慮도잇스므로 日本에잇서서는 그만치 不利한 立場에 處하게되는것이다. 따라서 中國幣制改革의 效果如何는 別問題로하고 그資金이 英米借款에 依하야 實現되려하는以上 日本으로는 反對할 立場에잇고 그反對의 程度 또는 手段이 紙上報道와가티 容易치안흘것으로 생각한 日中 및 日英米等 國際關係上 豫想以上의 結果가 나타나지 안흐리라고도 斷保하기 어려운點이잇다.

三

以上은 幣制改革의 國際的波紋이어니와 國內的으로 展開되는 그影響은 前者以上으로 尋常치안흔배가잇다. 即 中國은 우에서 말한바와가티 中央政權이 아즉 그程度에까지 充分히 미치지못한 나라이고 南北通貨가 各各으로 아즉 貨幣上 統一이업는 國家니마치 中央政府의 銀國有令이 一下에 그대로 服從되기는 어려운 實情이엇다. 九日外電에 依하면 天津市長 程克氏가 天津銀行界代表를 招致하고 銀國有令의 對策을 協議한結果 그 席上에서 當業者들은 準備銀保管委員會를 設立하야 現銀은 天津에保留하고 西南政府에서도 그對策을 協議한 結果 現銀保護는 一切反對키로 決定하엿다하니 이것으로써 그情況을 잘알수잇는가 한다. 이것은 南北에 中央政府의 威力이 아즉 미치지못하야 中國은 인제 完然 三分狀態를 묘示하는 同時에 이와가티 中央政策이 順調로 實施되지못하는곳에 通貨上 不安이 擴大하야 南京政府의 [illegible] 一時 閉鎖되엇고 北中方面의 多數商民도 [illegible] 幣制改革에 [illegible] 잇다. 이것은 幣制改革에 依한 經濟的危機를 [illegible] 하는것이어니와 此로 [illegible] 政治的影響은 一層더 重大化하지나안홀까 하는 念慮가 업지안타. 六中全會 以後로 蔣介石氏는 西南派及 北中巨頭(閻錫山、馮玉祥等)를 懷柔에 成功하야 어느程度로 統一工作이 進展을 보이고잇던 此際에 幣制改革을 斷行하고 南北 特히 北中方面의 反中央氣勢가 宋哲元、秦德純等의 指導勢力下에 漸次 露骨化하려는 氣運이 濃厚함으로 今回幣制改革이 中國統一工作의 前途에 一大暗影이 되지나안흘는지 念慮되여 마지안는바이다.

中國幣制改革은 日本은 絕對反對

『銀國有令은人民膏血搾取의手段』이라고

陸軍、重大意見表明

【東京電話聯合】陸軍當局은 中國銀國有案에 對하야 重大關心을 가지고 深甚한 監視를 繼續中이던바 九日非公式으로 如左한 重要意見을 發表하엿다

一、幣制改革에 依한 銀國有統制는 政府가 國民의 信賴를 박지못하고잇는 現況에 잇서서는 結局 失敗로써 도로혀 濟輪와 銀의 退藏을 奬勵하는 結果가되어 早晚 新紙幣는 一片의 紙片으로 化할 憂慮가만타

二、從來 中國金融界의 比較的强味는 中央에 金融의 權力을 確立하지아니한 까닭에 一地方의 破綻이 他地方에 그影響을 及하는일이 적엇던때문이다 따라서 今回의 政策遂行의 結果는 中央이 一步를 그릇하면 中國全土를 擧하야 收拾할수업는 事態에 陷入할念慮가 잇다

三、特히 日滿兩國과 密接한 關係가잇는 北中에 對하야 銀現送을 强要하는것은 北中經濟를 混亂에 陷케하야 塗炭에 苦痛하는 民衆으로하여금 社會的政策的混亂에 陷어너케될것으로 日本의 默視할수업는바이다

四、이에 反하야 宋、孔一派가 蔣介石氏를 中心으로 三、四億弗을 가지고잇고 또 이것을 거의 英米銀行에 外貨로써 換金해두엇다 萬若 中國의 弗爲替가 下落하여진다면 彼等의 富는 그만큼 增加할것은 當然하고 銀의 輸出稅를 五割七分을 課하게되면 五割七分換算價値만큼 增加하는것도 또한 當然타고 하지안흘수업다

五、要컨대 銀國有令은 張學良政權이 奉天票로써 人民의 膏血을 搾取한것과 同樣의 手段으로 國民을 塗炭의 苦痛에 陷케하고 南京政府는 一部要人의 私腹을 불리게하고 또軍費를 充實하려는것이다 如斯한것은 民衆의 幸福을 犧牲으로하야 私利私慾을 圖하고延하여는 東洋平和에 反逆하려는것으로 日本의 斷乎反對하는바이다

六、報道에 依하면 幣制改革實行에 對하야南京政府는 미리 英國大使카드간 레이드로스氏를通하야 英國側으로하여곰 이것을支持케하는 諒解가 잇는 模樣인데 最近 英國은 對中借款에 對한 日本의 協力을 要請하엿다는說이 잇스나 如斯한것은 將來民衆의 負擔이될 債務를 外國으로부터 [illegible] 그結果는 軍費에 流用하거나 軍閥을 潤澤케하는데 不過할것이오 또 僅僅一千萬磅으로서는 [illegible] 中國의 國際管理에까지 及할것은 必然이다 [illegible] 一千萬磅의 借款은 五千萬元以上으로서 이擔保로 [illegible] 의 一部分으로서의 永久責任關稅、全中國鹽稅收入을 要하엿는데 그擔保를 要하야 財政顧問 英中聯合의 [illegible] 하고잇다 한은 반듯이 浮說만이라고는 할수업다 果然 如斯하다면 南京政府는 自己의 權益을 外國에 賣却하기 爲하야 中國을 [illegible] 하여도 過言이 아닌것이다 要컨대 英國側은 滿洲事件以來 日本으로부터 바더온 壓迫에 對하야 지금 猛烈히 逆襲하게되엇다 이것은 드듸어 中國을 英國의 統制下에 置하는것인데 이것은 特히 日本과의 實持的對立을 招來하는 重大한일이라고도 할수잇는것으로 右는 東洋의 安定勢力인 日本으로서 斷然 承服하기어려운바이다 (寫眞은川島陸相)

中國을圍繞코 日英對立尖銳化

軍部態度至極强硬

【東京電話聯合】磯谷聲明에 이어 陸軍中央部가 九日 드듸어 重大意見을 發表하게되엇는데 右는 單히 磯谷聲明의 全陸軍의對中態度를 正面으로부터 宣明한것으로서 陸軍의 强硬한 態度가 堅持되는限 中國政府도 容易히 그主張을 無視하고 民衆의 利益을 蹂躪함과 如한 政策을 履行하기는 困難하고 英國뿐만아니라 第三國 일지라도 日本의 嚴然한 主張과 態度앞에는 果是 그企圖하는 金融的制覇를 斷行할수잇슬는지 與否는 極히 興味잇는바로서 軍部의 이强硬態度에 對抗하야 中國의 再分割을 企圖한것가티 보이는 英國의 金融資本과의 關係는 尖銳化하야 銀國有令의 實施過程에잇서서의 日英兩勢力의 對立情勢는 極히 重大化하게되엇다

天皇陛下 演習에行幸御中止

【東京電話聯合】九日 午後六時五十分 宮內省發表 (同六時十分 本多行幸主務官으로부터 大谷宮內次官에 對하야 電話) 天皇陛下께옵서는 今九日은 御微恙으로 演習에 行幸하옵시지 안흐시고 大本營에서 御統裁하옵실터이시다

銀輸送中止코 中央과經濟斷交?

北中事態進展極注目

【天津九日發聯合】天津市政會는 九日午後三時 다시 銀行錢莊業者 其他의 連席會議를 開하고 協議한 結果 現在 天津의 現銀은 銀行方面에 約三千萬元、錢莊方面에 九百萬元、外國銀行方面에 一千萬元 合計五千萬元이잇는데 이것을 中央에 送附하면 곳 北中經濟에 破綻을生할터이니 끗까지 反對한다는旨의 決議를하야 近近 南京政府로부터 派遣될 接收員을 絕對拒否하기로하고 一方 公安局으로부터 現銀持出을 嚴禁하고 民衆의 要望을 容認하야 天津停車場其他에 監視員을 配置하야 이監視에 當케하는等 南京政府와 實質上의 經濟斷交를 始作하게되엇다

銀의北中保管 中央에電請

【北平九日發聯合】北平市政會 銀行公會와 錢業公會의 聯合協議會는 九日午後 右三公會連名으로 財政部長孔祥熙氏에게 現銀은 北平에 準備保管分行을 設置하야 保管하고싶다는 旨를電請하엿다 同時에 市當局에 對해서도 同樣의 建議를 하엿다

一方 宋哲元氏도 人心의 安定 物價金融調整의 見地에서 現銀의 中央集中에 對하야 斷乎反對意見을 表明하고잇스므로 적어도 河北省에서는 中央이 意圖하는 現銀收納은 不可能하게될것이다 그런데 在北平現銀은 一千五百萬元內外라고 보인다

漢口市에銅貨飢饉

【漢口九日發聯合】漢口市民은 國民政府의 新貨幣政策不信任으로부터 變化하야 一般은 銅貨의 吸收에 汲汲하기때문에 市場은 銅貨의 缺乏을 訴하게되엇다 武漢警備司令部及 省市政府는 訓令을 發하야 銅貨堆積을 企圖하는者에 [illegible]

現銀集中은結局 數省에不過?

幣制改革과그結果

【上海九日發電通】綏遠省으로부터의 來電에依하면 綏遠省은 一、綏遠新疆省間의 貿易이 全然 現銀取引에 限定되어잇는것 二、省政府銀行券이 流通紙幣의 四分之三을 占하고 其他는 中國交通兩銀行의 紙幣가 五千萬元으로 中央銀行券은 極히 僅少하다는 理由로 只今卽時 國民政府의 幣制改革令을 實施하기는 困難한 事情임으로 結局 現銀集中 通貨管理도 南京及陝下의 數省에끈칠것이라고 觀測되는데 國民政府의 幣制改革도 失敗할수밧게업다고한다

宋哲元氏를懷柔 兩省軍權을好餌로

【北平九日發聯合】確聞하건대 蔣介石氏의 特使熊斌氏가 齎來한 宋哲元氏懷柔의 好餌는 平津衛戍司令을 取消하는同時에 河北察哈爾綏靖主任에 任命하고 이와同時에 中央에 反抗하고 或은 中央으로부터 離脫함과如한 中央의 面目을 失하는 行動을 取하는것을 삼가하라는것을 提議한것이다

北中에五色旗還元說

【北平八日發電通】北平市內에는 不遠해서 北中에 靑天白日旗를 廢棄하고 前日의 五色旗로還元하리라는說이 昨今盛傳되고잇다

現銀保管分行 設置承認?

【北平九日發電通】北平市長秦德純氏는 九日 午後二時 南京財政部에對하야 『北平市內各銀行所有現銀을 南方에輸送하는時는 重大한 金融恐慌惹起의念慮가잇스므로 北平에 現銀保管分行設置를 卽時承認하기를 바란다』라는電報를發하엿다 그리고 昨日 銀行工會로부터서도 同樣電報를 發하얏스므로 南京政府도 不得已兩三日中에 承認할模樣이다

吳、周兩名은銃殺決定 婦人記者等도處刑

晨光、新報、靑北報는發行停止

【南京八日發聯合】汪精衛氏狙擊犯人共犯者中 軍部關係의 吳振東、周維新兩名은 九日南京에서 銃殺하기로 決定하엿다 그리고 婦人記者王蒨文外三名도 各其處刑하기로 決定하엿다 國民政府는 狙擊事件發生과함께 晨光通信社에 通信發行停止를 命하엿다 八日 反政府新聞社、新報及 靑北報의 兩紙에 對하야 同樣의停止를 命하엿다

廣東市各銀行도休業

【廣東八日發聯合】廣東市內 各銀行은 省政府의 現銀收容 通貨管理法에 關聯하야 七日 一齊히 休業하고 八日朝 一旦開業하엿스나 瞬時後에 다시 休業에 入하엿다 通貨管理會의 解[illegible]

英國銀行側 銀塊積出

【香港九日發聯合】國民政府의 銀國有令에 關聯하야 香港側의 態度如何가 注目되여잇는 此際 九日午前 香港出帆 英國汽船소마리號(六、八〇九噸)는 銀塊二十五箱(百二十萬元)을 積載한 事實이 判明되엿다 右銀塊의 大部分은 滙豐銀行을 爲始한 英國系銀行에서 持出한것으로 目的地는 不明이나 英國銀行側은 續續히 注文中임으로 大規模의 銀塊積出이 잇스리라고 觀測된다

中國의幣制改革

對中政策으로는 日英兩國不兩立

(五) 徐椿

只今까지의 所述에依하야 우리는 對中政策에 잇서서 日英兩國은 結局的調和點을 엇지 못할 程度로 對立되어 잇음을 推測할수가 잇다. 이것은 上海八日電으로 傳하는 『幣制改革은 모름지기 中止하라, 北中國의 現銀은 我方의 實力發動에 訴하여서라도 斷然, 北中國에 保留하겟다.』云云의 磯谷宣明에 依해서도 알바어니와, 日本의 이對中方針은 적어도 滿洲事變當時에 발서 確立되어가지고 그以來, 繼續해 왓다고 볼수 잇다. 그리고 이 方針을 中外에 明白히 宣明한것은 昨年即一九三四年四月十七日의 所謂天羽聲明이다. 이聲明은 相當한 長文이기때문에 全文을 紹介할수는 업스나 여기 그要領을 따보면

一、日本과 列國과는 東亞에 對한 立場, 主張, 態度에 잇서서 當然히 相違해야 할것이다. 日本은 東亞에 特殊地位를 有하고, 東亞의 平和와 秩序의 維持는 日本의 責任이다.

二、東亞의 平和와 秩序의 維持에 對해서는 中國도 責任을 질것이오, 中國의 以夷制夷政策과 가튼것은 日本으로서는 當然히 此를 排擊할수밧게 업다.

三、中國은 保全되지 아니면 안된다. 그러나 그것은 中國自身의 努力에 依할것이오, 列國이 中國에 對하야 共同動作을 取함과 가튼것은 設使, 그名目이 財政的 援助又는 技術的援助라고할지라도 畢竟은 政治的意味를 띄게될것은 必然한것임으로 그形勢가 助長될때는 드듸여 中國에 잇서서의 勢力範圍의 設定, 中國의 分割, 國際管理의 端緒를 짓게될것임으로 日本은 反對한다.

四、最近, 外國이 中國에 軍用飛行機, 飛行術, 軍事教官, 軍事顧問等을 派遣하며, 又는 政治借款을 起함과가튼것은 結局, 中國과 日本그他의 나라와의 間의 關係를 離間하야 東亞의 平和維持에 反하는 結果를 生할것이 明白한 故로 日本으로서는 여기 反對할수밧게 업다.」

天羽聲明의 要旨는 이런것인데 이것이 一次 世界에 流布되자, 中國에 利害關係를 가진 列國은 다 驚愕하는 同時에 反對하는 要旨를 聲明하엿다. 日本의 東亞로主義라는 一明은 九個國條約의 違反인 同時에 [illegible] 에 잇섯다. 그中에서도 가장 猛烈하게 反對한 者는 英國이다. 對中貿易에 잇서서 日本과 伯仲을 다투는 英國으로서는 그럴수밧게 업슬것이다.

여기서 新聞、天羽聲明에對한論評을 보면 [illegible]

【一個條約當時는 歐洲大戰關係로 英米가 도라볼수업는 時期라서 日本은 [illegible] 條約을 [illegible] 한것이나 [illegible] 中國으로부터 [illegible]

(續)

日本內地米二回豫想高

大凶作으로發表

農林省米穀政策에도變化齎來?

比平年、百十一萬石減

【東京電話聯合】農林省發表=本年十月末 現在의 宮城外十六縣米豫想收穫高는 一千八百二十四萬八千二百六十六石으로 第一回豫想收穫高에 比하야 百三十六萬六千九百四十二石減少 前五個年平均實收高에 比하야 百十一萬三千四百三十一石의 減少이다 農林省 第一次公表=十月末日現在米穀收穫豫想高 宮城縣十六府縣의 分은 如左하다 (單位石)

	第二回豫想	前五個年實收比較
宮城縣	一、三三七、六六〇減	[illegible]
茨城縣	一、六三〇、五四〇減	[illegible]
埼玉縣	一、三五六、五二〇減	[illegible]
千葉縣	一、九五一、五〇〇減	[illegible]
神奈川縣	四八一、七一〇減	[illegible]
富山縣	一、六〇一、五五〇減	[illegible]
石川縣	一、一〇四、九一〇增	[illegible]
京都府	八〇八、二五〇減	[illegible]
奈良縣	七三七、九一〇減	[illegible]
廣島縣	一、三七一、六五〇減	[illegible]
德島縣	五九〇、四四〇減	[illegible]
香川縣	九一〇、七三〇增	[illegible]
愛媛縣	八六八、八三〇減	[illegible]
佐賀縣	一、二八九、〇七〇減	[illegible]
宮崎縣	八四七、〇八〇減	[illegible]
鹿兒島縣	一、三二一、三〇〇增	[illegible]
沖繩縣	一八六、八七〇增	[illegible]
計	一八、二四八、二六六減	[illegible]

【東京電話聯合】九日農林省發表 日本內地米第二回收穫豫想高는 第一回의 그것에 比하야 實로七分나 減少되엿는데 이것으로 推算하면 今年米作은 五千六、七百萬石程度의 大凶作이되지나안흘까하야 農林省今後의米穀對策에 一大反省을 與하는것으로 매우 注目된다 卽昨年은 五千百八十萬石臺의 凶作이엇는데 今年도 亦凶作임이 確實케되야 이와가티 農林省은 二個年連續凶作에遭遇된 關係로 農省米穀政策에 物議가 生하게되엿다 卽 農林省의 米穀統制法은 豐作對策以外에는 아모것도 아니고 特히 來議會에 提出하려하야 벌서부터 各方面에 問題를 釀成하고잇는 米穀自治管理法案과 如한것도 昭和八年의 七千萬石突破라는 大豐作에 刺戟되야 立案된것으로 立案當初二個年連續의 凶作은 全然考慮치안헛다 따라서 凶作必至로 보게된 今日 農林省으로서도 從來와 如한 豐作對策一點으로 對應할수업는狀態로되야 自治管理法案 가튼것도 來議會提出에 際하야 一大反省을 要할事態로 되얏다 그리고 農林當局이 今回의 豫想收穫高에 基하야 米穀對策의 變更을 試할는지는 甚히 疑問이나 自治管理法案만으로써 米穀事情이 變化된 現狀을 몰다면 農林省은 스스로矛盾을 犯하는것이 된다 如何間米穀自治管理法의 成立은 懸念材料를 提供하는것으로 農林省從來의 豐作對策에 一大變更을 示唆할것으로 今後의 推移는 注目할만하다

宇垣總督 十七日歸京豫定

【東京電話電通】宇垣總督은 夫人及 矢野秘書官同伴 十日東京出發 途中 伊勢大廟 桃山御陵을 參拜하고 給政二十五年의 報告를行한後 鄕里岡山에 들러 病臥中인 令弟를 慰問하고 다시 山口에서 故寺內元帥의 墓參을 마치고 十七日京城着歸任豫定이다

蘇土修交條約과 海軍協定을更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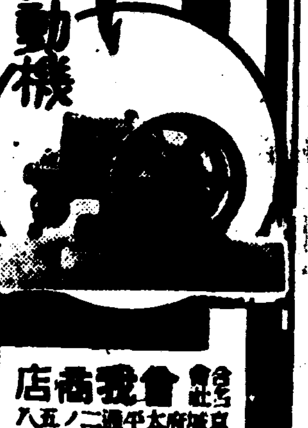
議定書에調節完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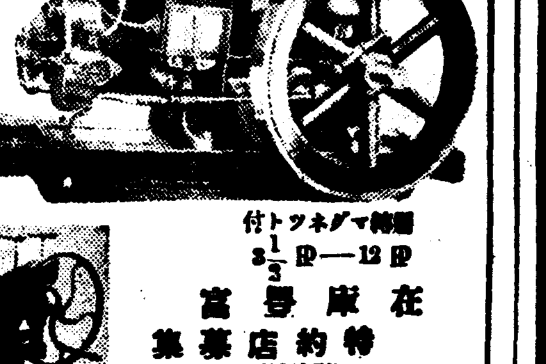
【앙고라八日發聯合】土耳其政府는 一九二五年十二月 蘇聯政府와의사이에 締結한 修交中立條約과 一九三〇年의 海軍協定은 다시 十個年間 更新延長키로하야 去七日 앙고라駐在 蘇聯大使카라한氏와의사이에 議定書調印을 了하엿다

金、銀、白金、金地金、土金、鉑金 高價買入
京城府南大門通一ノ八 太田地金商會
朝鮮日報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

サンゴ號自轉車
一步前進된 完全防水式
經濟價値三倍
東京 田端 サンゴ號自轉車工場

速히낫는 淋疾藥
特製 루-베리
藥價二円、三円、五円、十円
大阪市南久太郎町堺筋 竹村製劑所 振替大阪三一六〇番
全國到ル處ノ藥店ニアリ

農林省御推薦
가도다 石油發動機
農工業用 型錄進呈

合名會社 會我商店 京城府太平通二ノ五八 電話本局(2)三五六八



ダイフク 石油發動機
北村式製麵機 各號手廻機 各種動力機 附屬機部分品 在庫豊富
3½馬─12馬
特約店募集 (型錄送呈)
京城府黃金町二ノ一八一 北村鐵工場營業所
電話本局(2)五三一八番 振替京城二二四六七番

ヤパンモア
주근깨 여드름 집
永久한 靑春美!
東京市本所區 杉田商店

돈버리大王 리도-式 膨脹機
五合의米와 옥수수가 八升의菓子가된다
新型各種 가다로구進呈
大阪市東淀川區本庄西通一 兒島製作所

巡査看守(講義錄)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番地 朝鮮警務學會 電本(2)二〇三〇番

FARE WELL DR. AVISON

盡瘁精魂四十三年。

巡邏軍들눈避하야 患者차저 深更越城

世醫建築當時自手로 土役工事

魚丕信老博士回顧談

환자를 보아주려 시골로 갓다가—(하고 에비슨 박사는 혼낫다는 이야기로부터 회고담을 계속한다)—해가 저서서 대문밧글 나가야 될려드니까 아범서 문이 잠겻지요 알지요 그때는 밤이면 통행을 모다 잡그고 나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문안에는 순라군이 도라다니면서 낭자가 지나가면 자버갑니다 부인네만 치마쓰고 다니지요. 그래 이것 아! 큰일 낫다고 성아래로 와다갓다 하니까 성우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보고 『여보 어(魚)의사 아니요?』 하고 물읍니다 그래서 『네』 하고 대답하니까 『톰!』 저저!(하고 줄이라는 말을 이저버려 더듬더니) 줄을 성우에서 내려주면서 『자! 이놈 타고 성을 틈에 발대고 올라오시요』 합니다 그래서 줄을 잡고 기어 올라갓지요! 하하하하! (독자는 그 몸집이 큰 어바사가 줄을 잡고 월성(越城)을 하는 진기한 광경을 련상할것이다)

그래서 겨우 성우에 올라가서 그 사람한테 고마운 치하를 하고 『당신이 나를 어떠케 아러서 이러케 도아주시요?』 하고무르닛가 『네 어의사는 나를 잘 몰라도 나는 어의사를 잘 아오 우리형님 병알흘때 어의사가 치료해주엇소 그래서 잘 아오』 합니다 그런일도 잇섯습니다

아 그런데 하—(이러케 박사는 한번 한숨을 내어쉬이고 말을 계속한다) 그때 제중원에는 아—모 일도 아니하는 사람들이 만히 잇섯소 저— 괴거하고 아직 벼슬못 한사람 저—주사(主事)들 박사는 나을 이저버렷다가 그사람들이 중에 보충하여(다) 그사람들이 사십명이나 잇섯소 또그사람들 하인들이 섬은다섯명잇섯소 그사람들은 나라에서 다른벼슬은 못식혀주어서 우리 병원에 시비물로하면 쉬워(?)을 식혀주엇소 진찰, 치료 아모것도 모르는사람들이 그러케 모다 병원일을본다고 잇섯소 그때 나라님께서 병원에 매 마다 삼천원씩을 보조해주섯소 그러나 그돈은조금도 약사는데 치료하는 기구사는데 쓰지는못햇소 그의사아닌의사 ‖주사들이 먹고사는데썻소 ◇이런사람들이 잇섯는데 내가 시골을 갓다가 한일주일만에 도라오니까 그병원을 일본사람한데 내주기로 자기네끼리 작정해노앗습니다! 나는그때 노햇습니다 노하는것은 아니지만은 매우 섭섭해서 노햇습니다 일은 아모것도 모르는사람들이 일은조금도아니하는 사람들이 내가 업는사이에 병원을 도로 (일본사)람에게 넘겨라고한것은 참으로 섭섭햇습니다 나는노해서 그사람들을 다나가라고햇습니다 그랫더니 그때 나는 날마다 대궐에가서 나라님 병을보게되니까 나라님께 낫부게 (말햇)서 ... 햇지요 그러나 나도 그런말을 아니하엿소 아니하고 얼마ㅣ잇다가 시방 세부란스병원으로 옴겨왓소

◇처음에 병원을 지을때는 돈을미국서 가저와서 씻지마는 그다음에는 증축할때에는 돈이 업서서 퍽 곤란햇소 그래서 병원사람들 의사들 목사들할것업시 다나와서 나와한가지로 많이들돌고 흙을 (날랏)소 자—돈업스면 우리가 짓자고 그리햇소 그때 그사진은지금도 잇소 그러케 우리가 일하는데 미칩 미국서 돈이와서그 돈으로 집을지엇소 그때야말로칩으로 편키햇소

◇내말 알어듯기 어렵소? 네 그럿소 옛날에는 조선말을아주잘햇소마는 강연도 조선말로햇소 그런데 요새 와서는 다이저버렷소 조선말 배우든일 참 자미잇는 이약이잇소 이약이하지요 (계속)

사진설명‖사진은 에비슨박사 자신이 괭이를들고 현재의 세부란스병원 건축기지발상사를하는장면‖

强制調停權을賦與 小作調停令改正

修正原案審議를이미終了

朝鮮特殊事情도加味

조선에잇서서 소작조정법(小作調停法)은 재작년 십일월에 제정하든당시 일본내지의 소작법을그대로 채용햇기때문에 여러가지로 조선의특수사정에 비추어 맛지못하는점이 만흘뿐더러 그후농지령(農地令)의 실시와함께 조선의실정과서로 배치됨녀려가엇지안홈으로 그개정에대해서 총독부 심의실에서는 벌서부터 관계각방면과 심의를거듭해오든바 요지음에이르러 대체로그개정안(案)을 어덧슴으로 안(岸)심의실사무관은 이사명을띄우고 불원간 동경으로가게되엿다. 그리고 개정할주요점은 무엇보담도 조선의특수사정을 가미하여 현재에잇는 조정기관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강제조정할 힘을 인정하게될터인데 쟁의의 권고해결방법도 현저하게 강화될점이 퍽주목되여잇다한다.

昨夜黃金町서 二棟五戶全燒

損害는萬餘圓程度

구일오후 열한시십분경에 시내 황금정(黃金町)사정목 일백십륙번지 편강인쇄소(片岡印刷所) 공장에서 야업하든중에 불이나서 삽시간에 전소되고 그옆일백륙십칠번지 줄행낭집에연소되여 고바려관(古[illegible]旅館)등 네가호가 전소되고 동사십분경에 겨우진화되엿다 원인은 아직 조사중이나 실화인듯하며 손해는 일만원가량인데 공장과려관은 륙천원에 화재보험에 드럿다고한다

顧客으로꾸민고 싸홈을건후도적질

긔괴망측한 도적질도잇다 상점에 드러가 물건을 사는체 하고 주인과싸홈을 밧이터질드시 하고나서 물건을 훔처가지고다라난자 가잇다 시내 금정(錦町)이백십구번지 인쇄직공(印刷職工) 허표(許杓)(二三)는 칠일오후 여덟시쯤 태평통(太平通)이정목삼백오십일번지 박학수(朴鶴秀)잡화상에드러가주인과 시비를하야 면상에 일주일 치료를 요할로행을 가하고 저고리를버서노코 도라갓섯다는데 략한시간후에 다시차저와서 저고리와 가리 모자를두고갓는데 모자를 내라고 시비하든끄테 진열장에 노힌모자 한개를 가지고 다라나버렷다고한다 한시간후에 본정서의손에 체포되여 조사중으로 다른곳에도 이와가튼 범행이적지안흘리라한다

◇……첫겨울 信號 ● 추녀끗 풍경 소리!

前職警部뒤쟁이

건달을實在의富豪로꾸며서 妓生등처먹다被捉

전직 경부(警部)로 현직 사괴엇(詐欺業)의 간판을 등에지고 무슨일이나 생기지안는가 하야 시내각처를 도라단이다가 돈푼이나가지고 첩을구한다는 사람을알고 그를부내 모부호로 가장시켜어느기생을 소개하엿든것이 탄로되야 동대문경찰서에신세를 끼치고잇는자가잇다 그는 함흥(咸興)출신으로 일즉함해도 모경찰서에 경부로잇는주흑(朱黑)(四四)=假名=으로 그가모부정사건으로 퇴직하자 곳평소에 만히드려서 알게된 사괴와절도의리론을 실지에적용하야보다가 그에맛을부처서 전과삼범이란긔록을 만들엇스나 그때마다 성명과신분을속여 교묘히 법망을 놀려가며 초범노릇을 해온것이라한다 그런데 작년에는 은사령으로 복권(復權)되엿다는데 얼마전에 시내평동(平洞)유규정(劉圭政)([illegible])이란는 사람이 첩을구한다는 사실을알게되자 그주선을 가로마터 즉시유규정을 시계동(桂洞)백마창자유모(劉某)로 꾸며가지고 한성권번(漢城券番)의 리산옥(李山玉)이란기생에게 중매를하엿든바 리산옥은 이틀밤을지난 다음에 갑작히정든그남편은 부호의 유씨가아니고 그네들의 간계에 속은것을 알고 그들은 종적을감추고마럿슴으로 유부호를 차저가사실을 이약이하얏든바 그도 역시분개하야 동대문서에 이사실을고발하얏다한다 동서에서는 범인을 엄탐하든중 주흑의행위나안인가하야 주흑을잡어다 심문한결과 전기사실외에 유규정을속여 기생회대를 준다고돈이십원을 횡령한일까지 탄로되엿다 형사압헤안즌 전직경부는전과에대하야서는 그후로복권되여 복직될 가망이만흠으로 과히신분을 상하지안케 해달나고 점잔한태도로 빌내고잇섯다한다

京畿道癩患者 卅名更生園에

요사이 경성부내에는 거리마다 문둥병 환자가 이리저리 방황하야 위생상으로나 보안상으로나 그저버려둘수업는 상태이나 경비상 그들을 어떠케할수업서 거이 방임하여두던바 이번에소록도(小鹿島)갱생원(更生園)이증축락성됨에 따아 경긔도에서약 삼십명을 보낼수잇게되엿슴으로 경긔도 위생과에서는 비밀리에 시내각경찰서에 통첩하야 문둥병환자를 조사중인데 원체인원에 제한이 잇슴으로 이긔미를 안 문둥병환자들은 서루 자긔를 소록도로 보내달라고 날마다 경찰부 문압흐로 십여명식 모혀들어 시위(?)적 진정을 하고잇스므로 위생과에서는 그들을 달래여 보내기에 여간 고통이 아니라는데 조사가 끗나는대로 이달하순에 삼십명을 뽑아 갱생원으로 보낼터이라 한다

傳染病豫防目標 市內井水大消毒

菜蔬를씻는데感染된다하야 一般家庭에서注意實施必要

그만하면 종식된듯한 겨울철이다첫는데도 여전히 창궐해하는 소화기계통의 전염병중 특히장질부사의 발생원인에 대하여는위생당국에서 그동안여러가지로연구를거듭해오든바요지음무엇보담일상우리 식찬의대부분을 점령하는채소를 잘씻지안커나 또는 깨끗지못한 우물물에 다가 씻처먹는데서 그균이 채소에옴나붓는것이 드러낫스므로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이뜻을 관내각경찰서에 통첩하여 이점에특별주의를하라고 시달한바 잇섯는데 이에쫏차서 룡산서(龍山署)에서 도박두한 김장철을 당하여관내 륙백오십여개소의 먹고못먹는우물을 못지안코 오는 십일 십이 이틀동안 일제히『가루끼』소독약으로 대소독을 단행할터인데 일반가정에서도 특히 이점에주의할필요가잇다한다

日曜講話

◇宗橋教會 午前十一時
未定 필인 博士
午後七時
基督信者의自矜 申公淑 氏
◇英語講習院 午後三時
英語講話 徐培達 氏
◇南大門教會 午前十一時
感謝의意義 金英珠牧師
午後七時半
信者의三大義務 金英珠牧師
◇覺星寺 午前十一時
法華의信仰 朴聖權先生
◇同上會館 午後七時
『宗教를믿으라』 高忠業 氏
◇貞洞第一禮拜堂 午前十一時
참平安 洪淳浩
午後七時
이러한青年이되자 李植信
◇尚洞教會 午前十一時
神의要求하는人物 姜泰熙牧師
午後七時
唯一의救援 崔相鉉牧師
◇朝鮮中央基督教青年會
午後三時
活信仰 姜泰熙 氏
◇中央教會 午前十一時
『未定』 邊永瑞 博士
午後七時
『落心하지말라』 金基演 牧師

凱旋한 京城蹴球團 歡迎席上

烏有二百六十萬圓

發生件數가四千一百六件

昨年中에全朝鮮火災被害

총독부조사를 보면 작년일년동안의 화재피해는

發生數 四,一〇六件
全燒 三,五六〇戶
被害額 二,六三五,七七八圓
死者 七五人
負傷 二四三人

으로 전년보다 칠십오건이나 증가되엿는데 불원인은아궁이를 잘못단속한데서 난것이 제일만하 일천사백팔십일건이고 어린애들 불작난에서난것도 이백륙십사건이나 되다고한다

蹴球聯盟戰第二日經過

中東·一高·普專各勝、 道商·青學·籠友惜敗

朝鮮中央基督教青年會主催의 第九回籠球聯盟戰第二日은 九日午後六時半부터 鍾路青年會體育館에서 中東對道商 一高對青學(以上中學第一部戰)과 青年團의籠友對普專 普專對R龍 수리對延專戰이열린바 이날수리팀은 不得已한事情으로 棄權하야 延專은二對零으로 不戰一勝하엿는데 當夜의 各팀의戰績은 다음과가티 中東과一高、普專이各勝한비 K龍對普專의戰績은 明日發表할터이다

中東35 (1718…1013) 23道商

中學第一部의 中東對道商戰 同日午後六時三十分開始 金振秀、安台慶兩氏審判 前半戰에 中東十八對十三으로리—드 後半戰에入하야 道商最後까지攻擊한바 効果업시 結局三十五對二十三으로 道商敗

【道商】	前	後	反		反	前	後	【中東】
李相勛	5	2	2	C	0	6	12	李容觀
孫光善	4	0	0		2	7	4	李龍寬
					0	2	0	鄭元澤
柳永一	2	0	0	G	0	2	2	孫仁權
陳永得	0	2	2	F	0	0	0	金永喆
韓龍雲	2	6	1		1	0	0	田亨鎭
					2	0	0	李河世
	13	10	5		5	17	18	

一高28 (217…1411) 25青學

中學第一部의 青學對一高戰 同日午後七時二十分開始 宋基守、孫福俊兩氏審判 前半戰에 青學十一對七로 優勢하엿스나 後半戰에드러가 士氣不振하야 二十一對十四로敗하니 結局二十八對二十五로 一高勝

【青學】	前	後	反		反	前	後	【一高】
李應斌	0	0	3	F	0	3	2	安載恒
徐廷鉬	2	7	2		2	9	0	許鎭九
權重燐	2	0	0	C	1	2	2	金龍燮
金俊泰	0	3	2	G	1	5	1	朴勳植
兪仁濟	7	4	1		3	2	2	趙昌九
					0	0	0	孫完廷
	11	14	8		7	21	7	

수리棄權으로 2對0延專勝

青年團수리對延專戰은 수리팀棄權하엿슴으로 二對零으로 延專不戰一勝

普專52 (3121…157) 22籠友

青年團의 普專對籠友戰 同日午後八時十分 李惠澤、張權兩氏審判 前半에 普專劈頭부터猛襲하야 二十一對七로『리—드』 後半에잇서 더욱攻勢猛烈하야 三十一對十五로 結局五十二對二十二에 普專單大勝

【籠友】	前	後	反		反	前	後	【普專】
鄭東鎭	3	1	1	F	0	4	6	申光浩
金命謙	0	6	3		0	4	0	洪憲錫
					2	2	5	崔海龍
					1	6	0	閔正武
朴承論	0	4	2	C	1	1	10	金致雲
					0	1	0	金炳順
申海龍	2	3	2	G	2	2	9	辛在瀚
金東恒	2	1	1		1	0	0	玉普成
李哲一	0	0	0		2	0	1	李文鎬
	7	15	9		7	21	31	

盛況中마친 京蹴歡迎會

東京에遠征하야 朝鮮代表로서當當히優勝凱旋한 京城蹴球團一行의歡迎會는 朝鮮蹴球審判協會主催로 九日午後六時半부터 食道園에서 體育關係者三十餘名이會合하야 열리엇는데 主催側을代表하야 鄭文基氏의開會辭가잇슨後 祝辭에드러가 延專蹴球部長林炳赫氏와 今般京城蹴球團遠征時에 만히援助하야준 徐眠滄氏와 本社主筆徐椿氏의 歡迎辭가잇섯다 그리고 一般選手를代表하야 李榮敏君의答辭及 戰績報告가잇서 和氣靄靄裡에 同八時頃에 散會하엿다

마라손覇王 孫君歡迎會 十三日食道園서

朝鮮의世界的마라손覇王으로써 東京에遠征하야 마라손世界最高記錄을作成하고 八日에京城에歸還한 孫基禎君의歡迎會는 高麗陸上競技會와 養正高普同窓會發起로 來十三日午後六時부터 食道園에서 열린다는바 會費는一圓이며 當日體育關係人士는 多數參席하야주기를바란다고한다

山野橫斷競走에 第二高普優勝 個人엔李鍾祿君

서울陸上競技聯盟主催의 山野橫斷競走大會(크로스컨튜)는 豫定과가티 九日午後二時半에 參加選手八十九名이 出發點着場所인 培材高普運動場에 入場後 會長代理의 李寬求氏의 開會辭가잇슨後 郊外山野를 橫斷하는 約八哩距離서 열린바 다음과가튼 戰績으로 團體競技에는 第二高普가 優勝하엿스며 個人競技에는 鐵道學校李鍾祿君이 一着하엿다

◇團體競技
一等=第二高普 二五六點 二等=養正高普 二六三點 三等=培材高普 四六六點 四等=大東學校 六九二點
◇個人競技
一着=李鍾祿(鐵道)三八分二十秒
二着=安三進(大昌)三八分二三秒
三着=李泰過(一高)三八分三十秒
四着=邊大幸(遞信) 五着=李振燮(職業校) 六着=金興(安國)

同德女高普의 校內競技會經過

同德女子高普에서는 校內運動競技를보다더 助長普及키爲하야 年年校內競技大會를 여러오든바 其第八回競技大會를 九日午前九時半부터 同校運動場에서 籠球 卓球 庭球 打球等五種目의 各學年對抗戰이열린바 三學年乙組가 籠球 庭球 打球三種目에 優勝하야 第一位、三學年甲組는 卓球와 排球에의거 第二位를 차지하엿다

京蹴5 大邱2

【大邱】京城蹴球團對 大邱歡迎蹴球戰은 八日 午後三時半부터 大邱啓聖學校運動場에서 金永濟氏主審으로열린바 五對二로 京蹴軍이勝捷하엿다

中等럭비豫選 培材、京商各勝

中等學校럭비大會朝鮮豫選의第一回戰은 九日午後二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열린바 培材、京商이各勝하엿다

培材32 (1715…00) 0普成
京商71 (5021…03) 3京中

高專럭비 法專勝

全國高專럭비 朝鮮豫選의法專對大醫戰은 九日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열린바 十五對五로 京法專勝

法專15 (96…50) 5大醫

京城醫專惜敗

【大阪電話(電通)】第十七回全國學生씨름大會의 對校第二回戰에서 京城醫專은 三對二로 立敎에게 惜敗하엿다

今日의運動

▲蹴球=第九回官聯蹴球大會第一日 午前十時 京城運動場
▲馬術=全朝鮮學生馬術大會 午前八時 龍山騎兵隊馬場
▲럭비=中等럭비朝鮮豫選第二日 養正對道商 午後一時二十分부터 龍山球場

淋毒性疾患에

從來의治淋藥

淋疾治療上에잇서서 從來注入의副作用이나內服白檀油가잇다 이러한藥의藥力과效能에對해서는 이미醫學界가認하는바이지만 그러나 在來의單一白檀油는服用을 오래繼續하면 胃腸障害에基因하는 下痢等을이르키며 效能을 消滅식히는缺點도잇스며 또한銀은그것을注入藥으로하기보다 內服藥으로써 가장效果的인것은認定하면서도 從來에는銀을 水中에分散하는以外에方法이업섯다 그러면 內服한銀은食物이나 胃中의鹽酸蛋白等에化合되기때문에 效果가減殺되며 더욱 코로이드狀即微粒子에分散되드라도 그微粒의粒徑이粗大하기때문에 吸收되지안흐며 그대로排出되여버린다 結局은 모든局所注入藥에使用하는 程度에끈치며、더욱 注入藥은淋菌을後送하는여러가지 危險때문에 一般的使用이못되는것이 普通이다 그런故로가장安全適確한銀의治療藥을 實用的內服藥法이 醫藥界에對하야要望되든것이다。

銀內服藥의完成

京城帝大化學研究內에서 同大學敎授醫學博士小田切先生等에依하야『金屬オルガノゾル製法』— 金屬을 有機性分散媒、特히油脂와가튼 物質中에코로이드狀에分散하는 方法—의發明을보핫다、이方法은아직 歐米各國에서도 企圖치못한바 在來의文獻에도업고 全혀 同研究所獨特의 發明에依하는 劃期的인것이다、그製法을應用함에잇서서 技에銀을水과는性質이相反되는 油類即、白檀油中에 極微粒코로이드狀에 더욱·濃厚하게 分散할수잇는데 成功하야 銀オルガノゾル白檀油의 完成을보게되얏다、그리하야 오랜동안 待望되든銀의完成한 內服化를達成하야、더욱히 白檀油自體의 醫治作用과相乘的効果를 期待할수잇슴마큼 되게된것이 本劑バロール이다、現在同研究所內에서 그特許製法을가지고서 監督、小田切先生監督下에 嚴密製造되는것이다。故로バロール는 實로 銀劑라고하지만在來의 銀劑와 그性狀、治効力도 全혀딴獨特한銀內服新藥인것이다。

京都帝國大學 化學研究所創製

銀과白檀油의全幅的活用을 가진特殊醫治作用

특허제법 特許製法

그러면 バロール는 그것을 內服하면 그銀이食物이나胃中의鹽類、蛋白等의影響을 蒙하는일이업고、特히 코로이드化한 銀의微粒의程度는 普通의顯微鏡으로서는 볼수업는것으로써、그吸收力은 實로 굉장한 特有의부라운運動을식혀서、尿道의 粘膜皺襞內病巢深部는 勿論、粘膜의組織內、腺膣部의 淋巴腺婦人의 膣의組織內子宮喇叭管內等의深部에 直接菌作用을 나타내며 또한尿中에銀의析出을볼수잇다 다시 白檀油도 單一劑에잇는거와가튼 副作用을끼는일업고 共히尿에나오며 遊離되야 尿道의防腐消毒作用을 營하며 粘膜을刺戟식히지안흐며 淡症을增加식히는일업고、銀과의 兩作用과相俟하야 短時日에能動的으로淋疾治療의 目的을達하는것이다。

內服藥으로써의特性著大

銀의局所注入劑는 炎衝性을有한懷이이스며 또는 그使用이 簡便치안흐며 때로不熟練의結果로 오히려 淋菌을後尿道에 押込식히는危險이만타 精神的으로 時間的不便과不快의念을 이르켜서患者의苦悶하는바이다。그런데 バロール는 無味無臭한 球劑의內服藥임으로써 服用키 가장容易하며、副作用이업고、特히淋疾에 가장두려워하는 淋毒性內部疾患에의 移行을豫防하며 治療하는 作用이잇는것은 局所注入劑等으로서는 到底히미칠수업는것이지만、이內服藥バロール는 治療上가장特色으로써 自慢하는點이다。即本救的治療에 內服藥으로 推奬되고잇는所以도 또한 그러한여러가지 點에서차저볼수 잇는것이다。

バロール는 全國各地有名藥店及데파—트藥品部에잇다品切時에는 直接發賣元에 照會、振替貯金又는代金引換으로 注文하시면 送致합니다。

注意 本劑는 獨特한 銀オルガノゾル白檀劑인바 絕對他에 類似品이업다、求買時에는バロールむ고 指命하시라

バロール 바로—루

定價 藥價 一圓八十錢 三圓五十錢 五圓五十錢 十圓 送料內地 十五錢

文獻進呈 皮膚科紀要第二十二卷第三號拔刷·京都帝國大學醫學部皮膚科泌尿器科敎室講師醫學博士·片山壽郞先生記述文獻

東京市神田區鍛冶町大通(神田驛前電車通) 發賣元 大木合名會社 振替東京五四〇番·代表電話神田二一〇五番 支店 大阪丁目市東區淡路町一 振替大阪七七九五番·電話本局三三六九番

이것이다!!

健康에 最短코ー쓰!!

蛋白이다、脂肪이다、삐타민이다、榮養劑다、라고떠들기前에、于先、自身들의胃腸機能을再檢討하시라!、日常生活에서無意識中에不攝生으로依하야芽生한病芽가、얼마큼消化吸收의機能을阻害하는가하면、가슴아리、답답증、트림、헛침、체증、壓迫感等은이런것에障碍의SOS이다、이와갓흔障碍를除去안코서、엇더케榮養의充實에期待를가질수잇스랴!健康에의捷徑은、于先、障碍를除去하며、胃腸을强化식힘에잇다、治療藥아이후를잇지마시고服用하시라!

治療藥아이후는 胃腸粘膜의異常을整齊하며 病衰細胞에活力을賦與하야 全機能의 健全한 活動을 助長식힘으로써 ●食慾不進 가슴답답 嘔逆나고 트림나며 ●恒常泄瀉와 軟便으로서 便에는 粘液、血液膿汁이 석기고 ●배가불느고 꾸르럭 거리며 放屁만코 下腹痛나며 ●滋養物은 攝取해도 살로안가고 身體衰弱하며 ●元氣가 衰하고 顏色이不好 神經過敏으로 神經質이되며 ●술과 不消化物을 조금만 먹어도 곳 泄瀉腹痛나는 等의 諸症을 好轉식혀 明朗한 健康에로 引導하는것입니다!

健康

慢性胃腸病에는 アイフ (아이후)

▶全國到處有名한藥店에잇슴◀

藥價

胃와腸의兩病에는 アイフ (粉末)		胃病專門에는 健胃アイフ (錠劑)	
三服入 二十錢	十七日分 三圓	七十五錠入 五十錢	三百四十錠入 二圓
四日分 七十五錢	四十五日分 七圓		
八日分 一圓五十錢	特製十一日分 五圓	百六十錠入 一圓	千錠入 五圓

大阪市東區淸水谷西之町

發賣本舖 順和商會

振替大阪三四五五番 電話(東)五〇〇〇·五〇〇二·五〇〇三番

東京 東京市本鄕區眞砂町九番地 振替東京二六八八二番 電話(小石川)四〇一〇番

大連 大連市山縣通一丁目 振替大連三七六五番 電話七六〇八番

勞働市場巡禮 ⑦ (油肥工場篇)

作業은請負制로 油肥의用途多岐

元山의喜悲를左右하는정어리

元山支局…一記者

□□이 一覽하며 擊叫이 넘어앉은 解小한 것들을 저리보내고 이리들어 또는 造作하의 沿海漁場에서 上等漁夫들과 비늘은 漁船들이 뒤를이어 들어닿고 漁港의 埠頭를 놀어단 發動船들이 「에치긴」소리를 내면서 元山으로 元山으로 모여들면 漁港華衢는 倉比한것 대속에 못지어 欣喜한하다 봄에는 秋 여름에는 고등어 가을에는 정어리 全面에는明太等 魚類를 따라 瞬期되는 魚類는바다가 「生活의 戰場」인 元山府民에게 豐一한 乳房이 안닐수업다 只今은 가을 정어리의 盛期다 水產業은 一時 投機事業이라 秋에는 어느만치 정어리가 이따여 豐漁의 波狀을 지어 잇는고 記者는 정어리의

集散地 인 海岸通 정어리 工場地帶로 발을 옴기엿다 處理工場地帶에서는 일본 냄새氣가 피여올으고 海岸에는 勝한 人波속에 漁船들이 하여 정어리를 上陸하고 잇서 어鑛들는 活氣로 充滿하다 정어리는 上陸 되면서 備에 담아 담아서는 다시 二輪車에 실어 工場으로 끌어드린다 이고기는

紛鍍에 서 무든 罪를 만히 지엇는지 끝는가마속에 쓸어넛코 물을 때여 익힌다 익으면 끄집어내여「살롱」에다 넛고 搾機로 쫄어짜면 고기 덩어리는 壓縮을 當하면서 굿게다져지고 기름은 빠저서 흘너나린다 이리하여 최限度까지 다 짜내이면 다시 들어내여 魚粕은 乾燥場으로 運搬되고 魚油는 물桶에서 石油鑵에 담겨 倉庫로다 山積이 가치잇다

魚粕은 工場에서 勞働者의 손을 通해서 乾燥場에가면 婦女勞働者들의 막대끗과 손끗에서 日氣가조흐면 한 一週日間 시달니다가 다시 叺에가 되여 水產組合의 檢査를 지나서 貨物船으로 準備로 運送되여서는 汽船과汽車를 기다린다 그러면 이 魚粕은 어느곳으로가서 무엇이 되는가 魚粕은 日本內地로 移出되여

大財閥 의 倉庫속에 잇다가 日本農民의 손에 들어가면 田地의 땅속에서 肥料로 變身하고 또는 粉末이되여 上海等地로 輸出이된다 그리고 魚油는 多部分 興南朝鮮窒素肥料會社에가서 「硬油」이라는 비누와化粧料等의 原料가된다 이와가티 魚油粕은 그需要 가 多方面인 關係 兩工場의 重要한 地位를 占有하고잇스며 이에따라 各處에 工場이 叢立하고 元山에도 二十六餘工場이 叢立되여 잇서 그정어리消化量이 하로에 五六千餘貫

超過한 다고한다 이工場에 從業되는 勞働者는 婦女勞働者를 勞働者數가 三百名이나되고 이에 도 付屬되어 일하는 婦女子들이 四五百名이 넘는다 그러면 工場主와 勞働者와의 關係는 어떠한가 勞働者는 工場의 大小規模에 따라서 十名式 或은 十五名式組合하여

排漁로 부터 精造까지 일마와 賃銀을 決定하여 請負하는것이니 乾燥場의 遠近과 其他를 參酌하여 魚粕一百六十斤一俵에 二十一錢으로부터 三十錢까지 協定하는것이 普通이다 그러하야 일이잇스면하고 업스면놀고 또는 한창 盛漁期에는 이들은 晝夜로 잠을 자지못하고 作業을 하아야한다고한다 하거는 一般勞働事業이라

過多을 이루워 活動하지만 할수업는 職場이나 잘들다만이 갓가운데이라 容易蝕得할가기들이 한해에어누러게 되고 운동을 치고 고기비늘이 더덕더덕올을 單人들을 신고 漁港의가를 工場마다에 서서 勞働하는 내음새를 마러가면서 勞働하는 그를 魚肥工場의 勞働者들이여 그

悲慘한 形態가 現代의 悲慘한 勞働者의 典型的標本이 아닌니할수업다 今年度에 成績最佳한 沿岸漁民과 水產業者는 莫大로 損害的 大盛漁으로 말미암아 岸은 新漁期 豫測로 例年에보지못하든 百六十二萬餘圓이라는 最盛漁期이던 十月上旬에 만흔 漁村의 活氣를 떠엿다고한다 그러나 元山沿岸은

凶漁로 말미암아 憂懼에잠겨 無慘하다가 十月中旬頃에 多少職業을 뿐이라 十月三十一日末現在로 겨우 十萬四千貫의 漁獲을 하엿다 例年에 比하면 今年과 가른 해에는 近年에 이라고 할수업스며 그 漁의 豐凶 影響이 地方經濟에 關係로 말미암아 元山바다에 漁場이 가지못한것이다

工場街 에 斷到이 떠돈다 그러면 記者는 十月三十一日末現在로 元山의 二十六處 工場에 使役되는 婦女勞働者와 또는 婦女子들의 손에 쥐여진 勞役의 代價는 果然 얼마나 되는가를 보리라 今年에 各工場에서 勞働者의 손으로 消化한 정어리가 十萬四千貫인데 이것을 넉넉히처서 二十五錢平均으로 본다고하면 그

賃金이 二萬七千七百圓에 該當하리라 그러나 이것은 勞働者의 손에 只今쥐여진돈이 아니고 아직도 알수 乾燥하여 荷造하기까지는 相當한 時日을 要한다고한다 (此稿續)

產業

「인풀레」本格化 產業生產廿億突破

農產을筆頭各各飛躍

朝鮮產業界는 八年에서 九年에 다시 今年에드러서는 各產業部門이 모다 稀有의 好環境으로 全般的으로 進展하야왓든바 이 結果 八年의 朝鮮總產業生產十三億 八年十六億이든것이 十年度에는 確實히 超記錄인 二十億圓突破를 豫想하게되엇다 即于先 農產은 農產物로 米價高其他 農產價格의 平均二割五分의 昂騰에 依하야 또는 收穫增도잇서 前年의 十億圓에 比하야今年은 二億六千圓의 增加로 推定되다 工產額의 躍進도 또한 產額增大와 價格高로生產五億圓을 豫想하야 前年에 比하면約七千五百萬圓의 增加이다 鑛業은 密輸 其他를 考慮外에 두고 純增二千五百萬圓增으로 推定되고 水產도 前年의 一億六百萬圓에 比하야 約三千萬圓의 增加를 豫想되다 이에 林產의 搬材增加가잇서서 以上을 綜合하면 今年의 總生產額은 二十億을 突破하야 朝鮮인풀레는 本格化하야왓다

農村인플레警戒 經濟力充實을圖謀

總督府서各道에通牒

今年은 農產物價의 昂騰結果朝鮮內의 農業生產物價額은 前年에比하야 二億五千萬圓餘의 增加를 豫想하는데 이미 織物消費、알콜消費等에 農村好況의片鱗을示하고잇다 總督府에서는此動向을 憂慮하야 農會、金組等을通하야 極力農民의 現金收入을 蓄積식히고저獎勵中인바 다시 去八日 今井田政務總監의일홈으로 各道知事에 對하야 最近의 農村好轉을 機會로 農民의 經濟力充實을 圖케하야 浪費를 警戒하야 農村振興의本義를 徹底케하라는 意味의 通牒을發하야 浮薄한 農村인플레動向을 嚴戒하는바잇섯다

共同作業場數 七十八個所

大部分業績이不振

總督府商工課調査 最近朝鮮內共同作業場은 絹布二十四個所 麻布 十九個所 紙類二十二個所 陶器 九個所 洋襪 一個所 木工 一個所 藁細 一個所 莞草製品 一個所 合計 七十八個所 昭和元年부터 同十年까지 十個年間의國庫補助總額은 二十六萬二千九百五十圓에 達하는바 前記諸組合은 一般的으로 業績이不振狀態에잇슴으로 總督府商工課에서는 그의復興及整理로 하기爲하야 各 共同作業場의 詳細한 現狀調査를進行中이라는데 調査의 完了를기다려 補助及 復活策을 樹立할計畫이라한다

出廻繁忙期에 鐵道局의對策

出廻繁忙期에對한 鐵道局 貨物輸送計畫은 使用車 一日平三百五十輛 輸送噸數 一萬七千噸의 豫定으로 各鐵道事務所의 要求車輛數 一千四百十四車에 對하야 겨우四分引程度의 配車를하기로되엇는데 今年은 特別한經濟가업는限 輸送은 자못圓滑히 될것으로 季節的貨物로 目下特히 繁忙을極하고잇다 石炭輸送에 對하야도 石炭新製車 百十輛이 全部完成되야 動員되므로 今後는 要求대로 使用되리라고 한다

今後永續的으로 比律賓鑛石輸入

【東京電話電通】日本製鐵에서는 今年 試驗的으로 比律賓의 카라다양가鐵山의 鐵鑛石二十萬噸을 輸入하야 八幡製鐵所熔鑛爐에서 實際로 使用한 結果 豫想以上의 好成績을 거두고 品位도 六十%이며 또現地의積取設備도 良好함으로 今後도繼續하야 買鑛하기로되엇다 日鐵의 增產計畫伸張에 伴하야 最近日本內地、朝鮮、南洋等의 新鐵石增產計畫이 有力하게 進行되고잇는 이지음 이 比律賓鐵鑛의 永續的輸入은 注目된다

和順正租共販 今月一日부터開始

【綾州】和順郡農會의 正租共同販賣는 十一月一日부터 開始되엇는데 各面의 共同販賣日程은 다음과갓다한다

場所及日程

▲和順農業倉庫 每月三、八、一三、一八、二三、二八日

▲綾州以倉庫 每月五、十、一五、二〇、二五、三〇日

新京木材會社創總

【新京電話商通】滿洲國의伐採制에依하야 이미 創立準備中이든 新京共同木材株式會社는 諸般準備도되어 出願中의 伐採許可指令도밧고잇스므로 九日午後二時 記念公會堂에서總會를開催 社長並各役員을 選擧決定하엿다고한다

北朝鮮馬鈴薯로 酒精工業을開始

"日本막네"에서計畫

日本막네시아이드株式會社(資本金百萬圓)을 創設하야 城津에 工場을 設置한 理化學興業에서는 城津을 中心으로 大同內子의 質이든 化學工業의 芋藷式經營을 北朝鮮의 馬鈴薯 雜穀을 原料로하야 積極的으로 하기로되엇다한다 이는 京津工場에서 마그네사이트의 크링카 煉瓦 產業材料製造에 伴한 排熱을 利用하야 第一次로 北朝鮮의 特產인 馬鈴薯의 『알콜』工業에 着手하야 酒精을 製造하며 다시 이에 依하야 無水알콜 固形燃料等의 高度化學工業을 經營할 計畫이라 한다

右는 北朝鮮高地帶對策으로서 馬鈴薯의 積極的增產을 總督府에서 實施함에 伴하야 右理研의 綜合化學工業經營은 北朝鮮이 豊富한 工業原料를 生產하고잇스니만치 注目을 끄는더이라 한다

棉莖製絲 群山에新工場

棉莖에서 紙가生產된다는것은紙價昂騰의 今日相當히 注目되고 잇든바 總督府中央試驗所에 依하야 그 證明이 明白하게되여從來 南朝鮮地方을 中心으로 全朝鮮으로부터 生產되는 그棉莖이 溫突의燃料로 거이不顧되든 것이 依然經濟價値가 생기어이

平北鐵山沿岸서 명주조개의大漁場發見

每日二百餘名이採獲

朝鮮漁業界의 喜消息 平北鐵山郡沿岸에는 優秀한명주조개大漁場이 發見되엇다 그所在는鐵山郡柏梁面魚泳島와 同郡島間의 狹海인데 同漁場이 發見되기는 지난 七月頃이엇고 그동안 道水產課에서는 이漁場에對한 諸般調査를 進行한結果 生產程度가 非常히 富하서 一坪當 一千個의명주조개가 棲息하고잇스며 그面積이 十二坪에 達한다는바 이는 主로 煮乾을 하야 日本內地及 中國方面에 輸移出할수 잇는 것으로 最近은 每日二百五十餘名의 漁夫가 集中하야採取하고잇다한다

對印輸出綿織物 對策協議會組織

【大阪電話聯合】日本綿織物 對印輸出組合理事長 伊藤竹之助氏는 日印條約改訂에關하야 過般 印度官憲과 民間當業者와 會見 意見交換을하고 歸來하야 目下 商工、外務兩省에 그經過報告를 하엿다는데 各關當業者로서는紡聯 綿工同業會 輸出綿絲布 同業會 對印組合 綿工聯의五團體가 各三名의 委員을 選定하야 日印第二次 交涉對策協議會를 組織하고 近近 第一回會合을 開催하기로되엇다 그리고 느저도二月까지 具體案을 作成 印度側에 要求案을 提示하리라한다

深山寶庫開拓 北朝鮮材木出荷激增

惠山、拓殖線開通으로

惠山線着工、拓殖線竣成으로 北朝鮮材의 本格的出廻를招致하얏다。昨年以後 兩鐵道의 新設은 從前流筏과 會寧搬出의外에 搬材方法이업던 北朝鮮材에 新搬材코스를 與하야 城津吉州經由의 木材出荷는 增加되엇고惠山線의 將下까지 開通、白茂線(拓殖)의 延長은 原材地帶에達하야 今年以後 本格的의 搬材에 入하야 今年의 城津經由國有林材로 四十萬尺締에 達할모양이고 明年度에는 更히 二十萬尺締增加豫定인데 北朝鮮材는 九州、阪神의 需要地에 最適인 地理的立場에잇고 長尺物의 出荷를 봄으로 長尺材關稅로 外材의入荷難에 陷한 日本內地에서 歡迎되는 實狀이라한다。

慶尙南道에도 골드러쉬!

財閥이採金에進出

南朝鮮 就中 慶南北地帶는 골드러쉬時代에도·不拘하고 地層上、所謂慶南層이라 稱하야 斷層이 만허 本格的作業이 困難視되어 到處에 鑛鑛盛起가 發見되어도 作業은 發展치안든바 最近 石原產業의 손으로 慶南固城郡石鉾金山이 開發되어 探鑛한結果 斷層은 地表部에 꼿치고 地下에는 金脈의 存在가確認되어 會社에서는 本格的採取에 入하엿는데 固城、昌原兩郡도 同條件이라고보이어 俄然二郡은 一大產金地帶로 化하는 狀況으로 日產、昭和、野間等의財閥의 調査班도 몰려들어 俄然 慶南에도 골드러쉬를 實現하게 되엇다

北鮮製油豆粕製造

北鮮製油의 今年度 豆粕製造豫定은 近日中 專務與迭臨時總會開催를 機會로하야 重役會를開催 協議決定하기로되바 結局 最大能力 八十八萬枚를 目標로 原料大豆의 出廻如何에 依하야 態度를 決定하기로되엇다는데 前年度製造高는 五千萬枚이다

和順郡棉花共販開始

【綾州】全南和順郡農會서는 去十月十日부터 管內各共同販賣所에서 棉花共販을 開始하엿다는데 綾谷販賣所 十一月五日 現時價는 다음과갓다한다

一等 十八錢一厘

二等 十七錢一厘

三等 十五錢三厘

四等 十二錢五厘

五等 八錢七厘

滿洲國의產金 千萬圓突破

朝鮮을模倣大探掘

【新京九日發聯合】朝鮮의 產金一億圓을 目標하야 新興滿洲國의 產金額도 俄然 各方面의 注目을 끌게되엇는데 最近各方面의 情報를 綜合하면 年產一千萬圓을 突破하려는 氣勢에잇다 即 滿洲產金會社의 今年度採金豫想은 三百六十萬圓 實額의되고 此外에 全滿의 一般產金業界에 一萬五千人의 從業員이잇서 從來의 實積으로 推定하야 年收穫七百五十萬圓은 不下하고 一方 中央銀行의 產金買入이 一月以降 八月까지의 產金買入이 六百萬圓을 突破한것도 이事實을 證明하고잇다

但 張政權時代 及舊政府의 東進에 際하야 濫掘한 時代는年產二千萬圓을 突破하고 아직이에 밋치지는못하나 統制잇는 產金을 開始하야 短日時에 이成績을 擧하얏슴으로 滿洲當局에서는 朝鮮의 躍進에 模倣하야 今後 大大的으로 增產을 圖하기로 되엇다

質疑

一回一問으로하고 一問을明確하게

問 探鑛 特히 金鑛에關한 簡易한參考書 一種을至急히 下敎하시어주옵소서(釜山 一讀者)

答 京城府黃金町一 丸善出張所 發賣 渡邊萬次郞著 金鑛及金鑛床 定價 三圓五十錢

◇

問 生이 今般 陶磁器商을하고저하오니 日本內地나 朝鮮에서 製造하는 陶磁器商에發行所를 下敎하여주시옵소서 (沙里院沙原里 一讀者)

答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日本硝子陶器株式會社 販賣所 同鐘路四丁目 禹潤基

◇

問 小生이日本製唐具(鈴)를 購入코저하오나 販賣하는곳을 몰나 購入치못하오니 未安하오나 日本內地 或은 朝鮮內에서 販賣하는 商店을 急히 下敎하야주시옵소서 (義州 一讀者)

答 京城府明治町一丁目 喜登商店에서 팝니다

滿北油房好況

【哈爾賓八日發聯合】滿洲油房業 最近 大豆出廻와 共히 活況을 呈하야 操業十二工場 日產一萬二千枚인데 日本內地米糠高 安高는 賣行好況으로 先物百二十萬枚豫約이 잇고 年內에 約二百萬枚의 商談이 豫想된다한다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二三二七	金銀鐵鉛鑛	平北江界郡化京面	十月二十一日	江界郡化京面 康鎭松
一二三二八	金銀鉛鑛	同龜城郡方峴面	同	龜城郡□□面 代表者 金益亨 博川郡龍溪面 金秉柱
一二三二九	砂金	平南安州郡大尼面	同二十二日	安州郡新安州面 代表者 小川磐房 江東郡晩達面 木下健六
一二三三〇	金銀鉛亞鉛鑛	咸南新興郡東上面	同	新興郡東古川面 代表者 金永壽 長津郡新南面 沈昌元
一二三三一	金銀鉛鑛	同永興郡宣興面定平郡南山面	同	淸津府輸日町 代表者 近藤孫市 同輸泉町 濱田道太郞 定平郡府內面 金秉興
一二三三二	金銀鑛	咸南豊山郡天南面	同二十三日	安邊郡衛益面 代表者 李容愼 東京市赤坂區 龍三鑛業株式會社
一二三三三	同	同天南面、安山面	同	同
一二三三四	金銀鑛	京畿利川郡淸溪面雪星面	十月二十三日	京城府社稷洞 代表者 林德廣 同積善洞 權戊任
一二三三五	同	江原洪川郡北方面洪川面	同	同岡崎町 代表者 山名松太郞 同芳山町 大東楠松
一二三三六	同	平南寧遠郡太極面	同	德川郡德川面 代表者 朴奎煥 吳貫默 同寧遠郡太極面 裵貫文
一二三三七	알루나이트鑛	同小白面	同二十四日	咸興府住吉町 代表者 韓明台 同城川町 高元集 同本町四丁目 李載雄
一二三三八	砂金	忠北丹陽郡永春面	同	京城府公平洞 代表者 孫慶植 同峴底洞 李彦稙
一二三三九	金銀鑛	黃海松禾郡桃源面長淵郡樂道面	同	松禾郡松禾面 三島壽
一二三四〇	同	同遂安郡延岩面	同	仁川府松林里 金秉壽
一二三四一	同	咸南定平郡長原面	同	定平郡長原面 代表者 金利先 同 朴基鉉 同 李基英
一二三四二	金鑛	慶南梁山郡熊上面	同	釜山府草梁町 郡中宗弘
一二三四三	金銀鑛	平南寧遠郡小白面	同	寧遠郡大興面 趙炳用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二三〇四	忠南唐津郡順成面合德面泛川面	十月十八日	禮山郡禮山面 代表者 李鍾憲 同吾可面 權泰軾
一二一二二	平北龜城郡天摩面	同	義州郡光城面 孔貞浩
七三三三	忠南天安郡稷山面牙山郡陰峰面	同十九日	天安郡笠場面 朝鮮中央鑛業株式會社
一一五二六	京畿楊平郡砥堤面	同二十一日	京城府都染洞 崔文鉉
一〇一八七	江原楊口郡水入面東面	同	楊口郡水入面 代表者 韓明鎬 平壤府砂九里 崔日煥
七六九八	忠州郡仰城面	同二十二日	上島慶篤의住所를大連市臺山屯으로變更함

北滿同胞巡訪記 ⑤

哈爾濱支局 一記者

北滿齊齊哈爾에 同胞의進出刮目

將來를囑望·泰安農場

農場旅行에 疲困한 나는 하로동안을 旅館에서 쉬고 二十三日아침에 齊齊哈爾民會를 차즈러 大同大街의 넓직한 거리에 나서니 第一먼저 눈에 띄이는것은 日本內地人이 만흔것이고 資本의 積極的進出이다。前에 업든 大厦高樓의 새로운 建物이 櫛比하거는리서잇는데

道路 는鋪裝되고 自動車는 마음대로 驅馳하야 내面貌는 자최를 감추엇다 그런데 이곳同胞들의 事情은 民會長 金錫鎬氏와 理事 吳寅根氏의 말하야 주는바에 依하면 齊齊哈爾는 總戶數七十餘에 人口四萬三千으로 第二哈爾濱을

形成 하고잇는 大陸都市이며 여긔에 朝鮮人民會가 처음으로 서든때 即 昭和三年一月의 同胞戶數는 不過三十四戶에 人口百四十五名밧게 안되든것이 現在에는 總戶數三百十一戶에 男子四百三十七名과 女子三百九十五名으로 總計八百三十二名이라는 驚異的數字를 나타내이고잇스니 우리는 言語가다르고 風俗이다르고 統治主體가다른

滿洲 異域에 이러케까지 들어와서 살어고 버둥거리지 안으면 안되엿든 것이가 그러면 同胞農民과 市民들의 生活環境은어떠한가 農民은管內總戶數의 三分의一가량으로 大槪가 滿洲人의 土地를 商租하고잇다는데其中에는 滿人二、三十名을 農奴로두고 數十町步의 땅을

耕作 하는사람도 잇스며 더욱이 今年가튼 豊作에는 한집에서 네車級 或은 다섯車級(一車級二百三十二石)이 産出되리라고하니 無邊無際한것이 滿洲大野고 滿洲農作法이 아모리 放漫하야 肥料도 김도안매는 粗放農이라고 하드래도 滿洲에잇서서도 只今이아니면 돌려야할수업는 일이다 그리고 齊齊哈爾市內에 現存하는 同胞戶數는 二百八戶에 人口六百五十餘인데 그들의

生活 도滿進的으로 安定되고잇스며 事業家들도 생기어 날로 一般同胞들의 生活이 淨化되고잇다 여긔에 敎育機關으로는 昭和五年에 創設한 普通學校가 잇는데 現在 在籍兒童數는 男子五十餘名과 女子五十一名을 合하야 百五名이라는 數를 보이여 그들이 이곳에 子弟들을 敎育식히 노라고

힘을 모으고 마음을 갓치하야 애쓰고잇다는것은 짐작할수가잇스나 이들을 將來에 입균을 민들기 爲하야서는 이것만으로는 充分하다할수 업슬것이니 百年同胞가 살고잇는 滿洲에 朝鮮人中學校設置가 必要함을 늣기지 안흘수업섯다。

◇

나는 이튼날아침 四時三十二分 싸늘한 찬바람에 生을呪咀하는 가마귀소리에 잠을 깨여서 行裝을 가다듬어들고 泰安鎭에잇는 東亞保民農場을 차즈려고 馬車에 몸을싯고 濃霧가 자욱한거리를 나섯다。서리낀 찬바람은 江가에 살어름을 어 들어와 못견듸리만치 춥다 두귀를 마조잡고 간신히 齊齊哈爾驛에나오니 待合室에는 겨울옷을 몽처입은 滿洲人들이 어즈러운

行裝 과 行具를 땅에 노흔채 몰려서서 『빠스』와 汽車를 분간치못하야 口論이되여 室內를 震動식히고잇다 七時五分에 나는 와던길을 다시 도리켜 北安鎭가는 列車를 탓다 오던길이 밤이엿스니 가는길에는 무슨 새로운 風景을 차저보려고 無限히 애써보앗스나 鐵道沿岸에 보이는것은 벌판뿐으로 넓은 벌판을 가고가도 荒蕪地그대로이다 車가 寧年驛에

到着 하야 訓河에 가는 손님을 가려내이고 泰安鎭에 到着한때는十時半頃이다 나는여기서 나려 民會를 차저갓다 泰安鎭은 現在三千餘戶가 살고잇는곳이며 여긔에 우리同胞가 移住하야오기는 昭和五年度부터라고한다 그런데 東亞保民農場(俗稱泰安農場)은 現民會長 鄭龍淳 理事金永浩 有志 □□□ 三氏가

昨年 에 滿人의 土地 三百垧을 永租契約을 매저가지고開墾한것이다 이 農場은 昨年에 農戶六十戶의 農場施設資와 農貸金으로 二萬圓을 들여 근근히 二百七十垧을 耕作하얏는것이 當年의 水害로 農作이全滅되어 農民들의 生計는 悽慘을 極하게되어 하는수업시

熱과 意로 모아 노흔 功든塔을 호러버리고 每戶當二十圓以上 三十圓以下의 旅費를 支給하야 各地로 移動식혓다한다 이로因하야 民會管內의 總戶數는 不過四十四戶에 人口百四十三名밧게안되며 今年度에는이 農場에서 農戶二十戶가 九十垧밧게 耕作하지안엇스나 比較的 良好한 成績을 보이어 每間平均十六石이 收穫되리라한다 그런데

農民 의 負擔은 比較的輕微하야 一間에 對하야地租와農場費全體를 合하야 二石밧게안되며農會費와 稻種子까지도 無利息으로 融通하야 주어잇다한다 前記 三氏는、一般農民同胞들의 生活을 向上시키고 여러가지로 硏究實行하고잇스며 農地總面積이 넘고 呼蘭河川을 利用하는 水利도 넉넉하니 머지안어 그

成果 가나타날것이다(續)

火賊 林巨正 (219)

洪碧初 作 安碩柱 畫

청석골五의 二九

꺽정이가 서림이와 황천왕동이 두사람을 속으로 별르든중에 서림이는 홍화조산(興化造山)하얏다고 죽어어새라고까지 말을먹고 온터이라 공사를 개시하는 첫날 바로 거조를 차리게되든것인데 서림이의 발명하는 말을듯고보즉 실상 죽일만한 죄가업서서 도리혀 어색하야정다 꺽정이가 여러두령을 돌아보것도 당은듯이 전수히 어색한데서 나온일이건만 여러두령들은 거지반다 꺽정이가 간사람의 의견을 들으라는줄로 짐작하얏든 그중의 늙은오가가 계제를노칠까 겁내는것가티 얼른 입을열어서

『서종사의 말이 조금두 은휘업는말이요 만일 죽일죄가 잇스면 군법아래 언감생심 두호할리가잇겟소만 사실두 죽일죄가 업스니 서종사를 용서해주시우』

하고 말하는데 평소의 늙은한 말주변이 어듸갓는지 말이 꺽꺽하야다 늙은오가의 말이 끗난뒤에

『죽을죄 업는사람을 죽여쓰나요』

방유복이 말을

『죽을죄업시두 죽는사람이 세상에 들어쌧지안쏘』

곽오주가 가로채어 뒤뜨고

『형님 거조가 좀 과하섯소』

리봉학이 말에

『과하지요』

『과하다뿐이요』

배돌석이와 황천왕동이가 부쪼차 뒤바치는것을 꺽정이는 듯는체 만체하고 잇다가한참만에

『여럿생각에는 서림이가 죄가 업단말이지』

하고 말하니 맑창네못들었든 길막봉이가 남보담 먼저

『네 그러치요』

하고 말을 대답하얏다 꺽정이가 다시 두말안코 좌우시위에게

『서종사를 방으루 뫼서드려라』

하고 분부를 나리엇다 서림이가 의관을 다시 가추고 좌우로 부축을 밧고 방에 들어와서 자리에 안즈며 곳 꺽정이를 향하야

『유죄무죄간에 죽노(觸怒)하셧슨 불민한탓인데 용서하야주서서 황감하게 생각합니다』

말하고 머리를 굽히니 꺽정이는

『불안하우』

한마디로 대답하고 기침을하지아니하얏다 늙은오가가 꺽정이를 보고

『서종사의 놀란가슴을 진정시켜주자면 불가불 술이잇서야할테니 어떳소 우리 고만 술판을 차려보실라우』

하고 넌스레 웃는 부제응 내놋는데 꺽정이는 고개를 외치고 바로

『어듸 던분이나 어서 알다 좀 무어볼것이 잇다』

하고 황천왕동이를 바라보앗다

『네가 나를 안보구 내빼온것이라든지 너의누의를 충동여 보내지 앗다든지 모두가 괘씸한일이지만 그런건 다 더퍼두구 네가 내아며서 마주막 하직을 하느니마느니 하지안엇느냐 마지막하직이란게 엇더캐이냐 공사간에 네가 내게다가 그런말을 할사람이냐 소견을 좀 말해라 어듸 듯어보자』

꺽정이의 엄정으로 하는말을 황천왕동이가 숫제 대답안코가 만히잇스면 한꺼해야 호령이나 드지 별일이업슬것인데 황천왕동이는 자긔가 뻔뻔하고 떠다바지말때 배리들리것이 누님의 청강이불어진것을 보고 다시 일충더 들려서 꺽정이를 미워하는맘까지 생긴데다가 됫생각이 원체 좁모자한탓으로

『그것두 잘한일이요』

하고 엇나가는 대답을하얏다

『무어시야 네가 잠을 당하구 시프냐』

『목을 잘르든지 사지를 찟든지맘대로하시구려』

『네가 나를 넘보구 대드느냐』

『네 넘봣소 멸시햇소 멸시하면 처참한다지요』

꺽정이는 얼골에 핏대가 서고 눈꺼가 찌어지게되엇다

『불출아』

『눈퉁아』

좌우시위 신불출이와 곽눈퉁이의 일홈을 꺽정이가 연달어 불렷다 좌우시위가

『네 네』

대답하고 방문아래 들어서자 꺽정이는 곳 죠개 열놈만 뻬어물러 대령하라고 호령하엿다 방유복이는 황천왕동이더러 그만하시 말대답하얏다고 나물한뒤 황천왕동이를 대신하야 꺽정이의 용서를 빌고 리봉학이는 꺽정이에게 황천왕동이의 방자한것을 처서말한뒤 회룰참고 조용히 꾸중하라고 권하나 꺽정이는 눈을 딱 감고 안저서 건다쓰다 대답한마듸가업섯다 얼마동안 안지나서 두시위가 죠개들을 다리고 와서대령하얏다 꺽정이가 벌떡일어나서 황천왕동이를 번쩍 들어 방문밧게내노며 시위와 죠개들에게

『너의들이 이놈을 끌구나가서 당장 목을 베여바처라 시각을 천주하면 너의들두 다목이 떨어질러니 그리알구 거행해라』

하고 주상가튼 호령을나리엇다